

광주 푸드스트리트존 연말·주말 특수 '무색'

"매출이 0인 날도 있어 요즘은 투잡까지 뛰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지난 10일 오후 광주 남구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은 인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먹거리 점포 22곳과 문화예술 점포 9곳이 300m가량 늘어선 도심 복합 문화·상업 공간이지만 연말 분위기를 무색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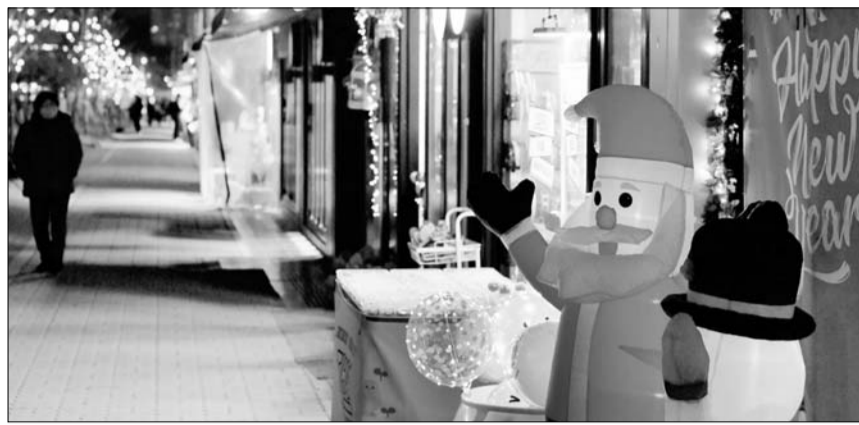
상점마다 반짝이는 전구, 산타 인형 등 성탄절 장식으로 한껏 멋을 냈지만 주변에는 밤 산책을 나온 주민들이 종종 눈에 띈 뿐이었다. 겨울철 손님 맛으로 한창 바빠야 할 빵·만두집에도 발길이 뜸 골렸다. 지난 8월 푸드존이 문을 열었지만 벌써 점포 2곳은 비워져 있었다.

간혹 보이는 가족·연인 단위 방문객들은 구입한 음식을 먹을 장소를 찾지 못해 한참 서성었다.

빈 점포(9.9m)에 취식 공간이 마련돼 있었지만 단체 손님이 이용하기엔 비좁았다. 설치된 스펀디 테이블(입식 탁자)도 1m 높기로 키가 작은 아동들은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어린 자녀와 함께 온 부모는 취식

'백운광장 활성화' 복합 문화 공간 올 8월 개장

오픈 직후만 반짝...매달 적자에 투잡 뛰는 상인도



10일 오후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푸드스트리트존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간을 찾다가 "앉기가 웬색하다"며 바깥 조경석에 앉아 푸드존에서 산 음식을 먹었다.

송건영(29)씨는 "이렇다 할 볼거리도 없는 데다, 아이들과 함께 편히 앉아 먹을 만한 공간조차 마땅치 않다.

다시는 안 찾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백운광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입점한 상인들은 매출 급감으로 폐점까지도 고심하고 있다. 4개월째 계속되는 적자에 투잡(two job)을 뛰는 상인까지 나왔다.

카페 업주 A(32·여)씨는 "평일엔 매출이 0원인 날이 많고 토요일 하루 매출은 겨우 6600원 벌었다. 적자가 계속돼 몇 주전부터 매장을 지키며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시작했다"며 "남아있는 상인들도 계속 영업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식점 주인 B(52·여)씨는 "지자체에선 '백운광장 도시철도와 공중보행로가 완공되면 유입 인구가 많아진다'며 상인을 모았지만 공사는 지연되고 있다. 매출은 오픈 당시 2주만 반짝 있었고 요즘은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먹거리 상가 입점 상인 C(35)씨는 "지자체가 예산까지 들여 상인들을 입점시켜 놓고 방치하고 있다"며 "남구는 전담 조직을 꾸려 사람들을 끌어모으려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방문객 성향, 매출 감소 이유 등을 파악해야 한다. 실질적인 푸드존 활성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일상 기자

광주시,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 강화

내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단속

광주시는 내년부터 상습적이고 고착화된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 강화는 보행자 불편과 안전 사고 발생 등의 불편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점, 보행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대한 필요성 때문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지난 6일 5개 자치구와 함께 정비방안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안내장 배부·홍보

캠페인 등을 통한 대대적인 사전 홍보를 벌인 뒤 자진 정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노상적치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단속은 계도장을 1~3회 발부, 자진 정비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행정대집행(강제철거)·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일상 기자

서구, 지역복지사업 평가 '4관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3년 연속 대상...통합돌봄 대상

서구는 '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포상금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 및 229개 시군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내역,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동, 2021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의료급여사업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서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 '대상', 2021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분야 '우수상', 의료급여사업 분야 '우수

상' 등 총 4개 분야에서 쾌거를 이뤘다.

특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에서 3년 연속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분야에서 3년 연속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으로 '복지 1번지'는 광주 서구'의 위상을 굳건히 지켰다.

심사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는 트라우마에 갇힌 여성장애인을 도운 사례가 호평을 받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는 추진체계 구축 및 체계개선 노력 등 해당 지자체에 적합한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을 받았다. /권영만 기자

윤혜영 광산구의원 '경로당 지원' 사각지대 없어

'광산구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276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등록 기준 미달로 신고하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과 이용인원 감소 등으로 지원 기준에 미달되는 '등록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등록 경로당'은 시설기준은 충족하지만 건축물 용도, 소유주, 이용인원 등으로 인해 경로당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시설로, 노인이가복지의 목적으로만 운영하며 10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등록 경로당'과 관련 법의 지원 기준에 미달되는 '등록 경로당'에도 운영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윤혜영 의원은 "기존 법에서 등록 조건을 갖추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은 냉·난방비를 지원 받지 못해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신다"며 "노인 복지기관 광산구 복지라는 생각으로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전남 농산어촌유학생

10명 중 7명 기간연장

전남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참가자 10명 중 7명이 유학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2학년도 1학기 농산어촌유학프로그램 참가자 3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설문에서 6개월 연장을 희망한 학생은 215명(70.7%)이다.

2년제 농산어촌유학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56명(18.4%)이며 3년 이상 장기유학을 희망한 학생은 60명(19.7%)이다.

3년 이상 장기유학 희망 학생 중 25명은 단기유학 형태로 참여하던 중 '정주형 장기유학'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적 효과는 대상 학생의 87.2%가 생애감수성이 향상됐으며 사회성 향상(58.6%), 자연 사랑(57.1%), 정서적 안정(54.3%), 체력 향상(34.3%) 순이다.

반면 단기 체류형 유학프로그램 참여한 가족들은 정주여건 미비를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종배 기자

시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 추가검사 전원 정상

광주시교육청이 폐암 의심 진단을 받은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기준을 고용노동부가 정한 경

력 10년 기준보다 확대된 경력 5년 이상으로 설정했다. 특히 선제적 검진을 통해 폐암 실태를 확인하고자 1366명의 급식종사자를 최종 검진대상자로 선정했다.

1차 검진 결과에 따르면 519명의

검진자 중 11명이 폐암 의심 소견을 받았다. 이에 시교육청은 조선대학교병원과 협력해 추가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정상임을 확인했다.

조선대학교병원 이철갑 교수는 "검사 결과 2.1%가 넘는 이상소견자가 발견돼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이 우려됐으나, 모두 정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도희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공급업체 모집

북구, 지역 특색 담긴 답례품 발굴·지역업체 참여 확대

북구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지역 특색이 담긴 답례품 선정에 나섰다.

광주 북구는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과 관련해 오는 22일까지 답례품·공급업체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예선 품목을 미리 정하지 않는다. 업체로부터 직접 제안받은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동시에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북구만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답례품을 발굴하고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모집 대상은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생산·배송할 수 있는 업체다. 최대 2개 품목까지 제안할 수 있다. /주성조 기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올 간 북구청 세무1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 북구는 지역 자원 활용도, 공급·마케팅 능력, 상품 우수성 등을 두루 평가해 이달 안에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북구는 이달 5일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했고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꾸려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했다.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세액을 일정 비율 공제해주고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주성조 기자

농장직영 진남맹생이탕

예약문의 : 010-3925-3842

연소탕
수육
오리탕
닭볶음탕

박 래 섭

010-6480-3842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221

061)395-7977